

자동차 수출·생산 하락 ‘신차효과’ 내수는 증가

산업부, 10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
조업일수 줄어 수출 3.2% 감소
일평균 생산량 1만7699대로 늘어
내수판매 16만151대, 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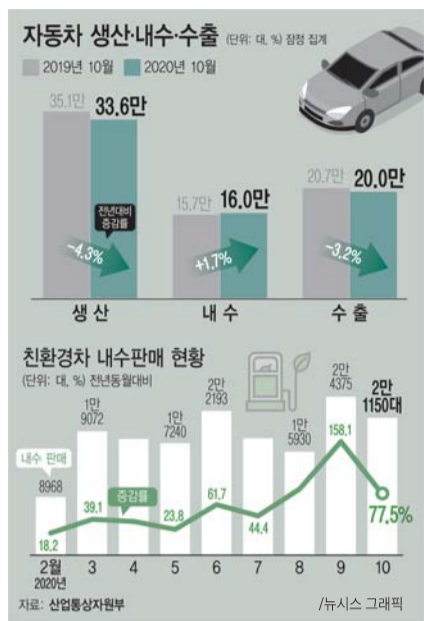
10월 자동차 수출과 생산은 각각 약 3%, 4% 줄어든 반면 내수는 1.7% 증가했다. 추석 연휴로 2영업일이 감소했음에도 국내는 신차 효과 등으로 판매액이 늘었다. 수출도 차량 댓수는 줄었지만 수출액은 늘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0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3%, 3.2% 감소한 반면 내수 판매는 1.7% 증가했다.

산업부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 이틀 감소, 한국GM 노사갈등 등으로 총 생산은 줄었지만 10월 일평균 생산량은 1만7699대로 전년(1만6734대)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산차 판매는 1.7% 증가한 16만 151대를 기록했다. 카니발, 아반떼, 쏘렌토, 제네시스 등 신차 출시 효과로 풀이된다.

수출은 전년보다 3.2% 감소한 20만 666대를 기록했다. 미국 등 주시장이 판매를 회복했지만 조합 일수 감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조업일수 동안 10월 일평균 수출은 1만561대로 전년(9872대)보다 많았다. 총 수출 댓수



는 줄었지만 고부가가치 차량인 SUV, 친환경차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액은 5.8% 증가한 4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보다 30.1% 증가한 3만110대가 팔렸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3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10월 6262대였던 전기차 수출은 올 10월 1만 3267대로 2배 이상 늘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 중국 국경절 연휴, 유럽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 감소한 1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정실에서 정례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방미대표단 추진’

與野, 인사청문회 개선 TF도 구성

국회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미국 방문 시기에 대해 한 공보수석은 “(방미 관련) 실무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을)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여야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함께 개선하기로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박 의장 제안에 동의했고, 관련 TF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찾은 가운데 박 의장과 환담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반도체 등 강세... ICT 수출 5개월째 증가

산업부, 10월 수출액 164억 달러
수입액 102억 달러... 9.2% 증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강세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164억달러, 수입액이 102억2000만달러, 무역수지는 61억 8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 5개

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액도 9.2% 증가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6억7000만달러보다 1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10.1% 늘어난 87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어 ▲디스플레이(10.6% ↑) ▲컴퓨터·주변기기(5.9% ↑)의 수출액이 늘었고, 휴대전화(11.3% ↓)는 부진했다.

반도체는 메모리(9% ↑)와 시스템(15% ↑) 반도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었다.

디스플레이는 신규스마트폰 출시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부분품 수출이 늘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보조기억장치를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휴대전화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완제품과 부분품 모두 각각 16%p, 9%p감소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0.7% ↑) ▲베트남(28.2% ↑) ▲미국(8.8% ↑) ▲유럽연합(6.5% ↑)으로의 수출액이 증가했고, 일본(9.9% ↓)에서는 줄었다. /이현진 기자

산업부, 오늘부터 韓-칠레 FTA 현대화 논의

상품·지재권 등 5개 분과 협의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를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 제4차 개선 협상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약 30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칠레 측 수석대표는 펠리페 로페안디아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며 외교부, 재정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한·칠레 FTA는 2004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



호세 미겔 세벨레다 토레스 주한 칠레 상무관과 모델들이 칠레산 아보카도를 선보이고 있다. 칠레산 아보카도는 지난 9월부터 정식 수입이 허용되면서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뉴시스

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상 환경 변화를 감안한 상품,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협력 등 5개 분과에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분과별로 칠레 측과 긴밀히 협의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농촌집 고쳐줄家’ 공모전 7점 입상

농식품부, 대상 등 총 7점에 상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함께 농촌 집 고쳐줄가(家)’ 공모전 입상작 7점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공모전은 영상, 활동수기, 사업 아이디어 제안 3개 분야에 53점이 응모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들의 1·2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점(각 200만원), 우수상 3점(각 100만원)을 뽑았다.

대상은 집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소개한 영남대의 김지윤·김사윤씨가 선정됐다. 영상분야 최우수상은 타임 랩스(일정 시간 간격으로 움직임 대상을 촬영하는)를 사용한 배우미씨, 우수상은 랩송으로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을 소개한 송은석씨가 각각 뽑혔다.

수기분야 최우수상은 다년간 봉사활동을 소개한 이현희씨, 우수상은 전승구씨가 선정됐다. 사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은 농촌 노인 낙상사고 사전 예방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재찬씨가 선정됐고 우수상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기부 클라우드 펀딩을 소개한 임도연씨가 선정



‘농촌집 고쳐줄가’ 랜선 토크 콘서트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됐다.

수상자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한 작품들은 다솜동지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오는 20일에는 작사가이자 방송인인 김이나씨가 출연한 ‘농촌집 고쳐줄가(家)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 농리와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이현진 기자

美 수질·토양 숙련도시형 한국농어촌공사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수질 및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시형에서 최우수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숙련도시형 시험은 세계 각국 분석기관이 참여해 측정분석기관의 분야별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인증프로그램이다.

평가방식은 ERA에서 제공한 시료를 수질, 토양 등 항목별로 참여기관이 분석하면 그 측정결과를 검증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수질 및 토양분야별 전체 항목에 대해 최우수(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아 2016년 참여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질분야에서는 TOC(총유기탄소), T-N(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 CN(시안), Phenolics(페놀), Cr6+(6가 크롬), As(비소), Cd(카드뮴), Pb(납), Cr(크롬), Cu(구리), Mn(망간) 등 총 13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토양분야에서는 As(비소), Cd(카드뮴), Pb(납), Cu(구리), Ni(니켈), Zn(아연) 등 총 6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으며 국제 수준의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현진 기자